



‘3할 타율 회복’ KIA 김도영 홈런왕·MVP 향해 달린다

NC와 주말 1차전서 시즌 33호포…최근 7경기 6홈런

2할대 벗어나 시즌 첫 3할 고지…정확성까지 되찾아

KIA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이 홈런과 타율을 모두 끌어올리며 리그 최고의 타자로 다시 우뚝 섰다. 3할 타율 회복과 함께 홈런 선두까지 굳히면서 40홈런과 두 번째 정규시즌 MVP를 향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김도영은 지난달 31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NC다이노스와 주말 1차전 경기에서 3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1홈런) 1타점을 기록했다. 비록 팀은 이날 4-10으로 패했지만 김도영은 시즌 33호 홈런과 함께 타율을 정확히 0.300까지 끌어올리며 절정의 타격감을 이어갔다.

최근 상승세는 압도적이다. 김도영은 최근 7경기 27타수 11안타 6홈런 9타점 타율 0.407을 기록하며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타자로 군림하고 있다. 홈런 부문 2위 오스틴 린(LG)과 격차도 2개로 벌었다.

특히 이번 3할 타율 회복은 더욱 의미가 크다. 김도영은 시즌 초반 타율이 2할대로 떨어지면서

홈런 생산력에 비해 정확성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6월 월간 타율 0.354를 기록했고, 7월에도 78타수 25안타 타율 0.321을 기록하며 마침내 시즌 첫 3할 타율 고지에 올랐다. 홈런을 의식하기보다 자신의 스윙과 타격 밸런스에 집중한 것이 오히려 정타력까지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범호 감독 역시 김도영의 상승세를 기대했다. 그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타율이 조금 떨어져 있다고 보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며 “김도영의 능력이라면 3할3푼 이상도 가능한 선수다. 시즌이 끝날 때쯤이면 본인이 원하는 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페이스라면 개인은 물론 구단 역사까지 새로 쓸 가능성도 충분하다. 김도영은 100경기에서 33홈런을 기록하며 144경기 기준 47~48홈런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오는 9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으로 일부 경기에 결장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50홈런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

다. 그럼에도 타이거즈 한 시즌 최다인 트레이시 샌더스의 40홈런과 자신의 개인 최다인 38홈런 경신은 충분히 사정권이다.

2024시즌 작성했던 141경기 544타수 189안타 38홈런 109타점 143득점 타율 0.347의 MVP 기록에도 다시 도전하고 있다. 현재 성적은 100경기 370타수 111안타 33홈런 86타점 83득점 타율 0.300이다. 남은 경기에서 지금의 타격감을 이어간다면 2년 만에 다시 3할-30홈런-100타점-100득점 달성도 현실적인 목표가 될 전망이다.

수비 역시 리그 정상급 수준으로 올라섰다. 2024시즌에는 30개의 실책을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는 100경기 가운데 86경기에서 3루를 지키며 723.2이닝을 소화했고, 실책은 단 4개 뿐이다. 3루수 가운데 노시환(한화·751.2이닝)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비 이닝을 책임지면서도 안정감을 유지해 유력한 수비상 후보로 거론된다.

올 시즌 KIA가 치열한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김도영의 방망이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홈런왕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간 그는 이제 정확성까지 되찾으며 다시 한번 리그 MVP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SOOP 수퍼스 전남광주 안착…체육회·지자체 협력 빛나

3월부터 유치 총력…연구 협의·시설 지원 함께 추진

여자프로배구단 SOOP 수퍼스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구지 확정은 체육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이뤄낸 결실이었다. 수개월간 이어진 협의 끝에 지역 프로배구의 새 터전을 마련하면서 스포츠 행정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SOOP 수퍼스는 지난달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새로운 연구지로 공식 확정하며 지역 정착의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올해 3월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담 테스크포스(TF)와

협력해 여자프로배구단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국배구연맹(KOVO)과 구단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 연구지 이전과 운영 방안, 안정적인 정착 대책 등을 논의하며 협의를 이어왔다.

유치 과정에서는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을 비롯해 박종규 부회장 등 지역 체육계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구단 운영 주체와 연구 협의는 물론 체육시설 활용 방안과 지역 스포츠 기반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연구지 확정을 뒷받침했다.

이번 성과는 지방자치단체와 체육회, 프로구단이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 스포츠 경쟁력을 높인 대표적인 상승 모델로 꼽힌다. AI페퍼스 해단 이후 지역 프로배구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동계 프로스포츠 기반을 다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체육회는 SOOP 수퍼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여주종합체육관을 홈경기장과 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장 운영과 시설 관리, 이용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선수단이 최적의 환경에서 훈련과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프로배구단 유치를 계기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배구 저변 확대와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SOOP 수퍼스의 전남광주 연구지 확정은 지역 체육인과 배구팬 모두가 함께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여주체육관이 최고의 프로배구 경기 환경을 갖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프로배구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와 스포츠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최근 국제양궁장에서 조선대 양궁 선수단과 베트남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씨름·양궁 전지훈련’ 광주 체육시설 경쟁력 입증

국내 씨름 유망주·베트남 국가대표 등 잇단 방문

선수 맞춤형 지원 강화…전지훈련 거점도시 도약

광주시체육회가 국내 씨름 유망주와 해외 양궁 선수단을 잇달아 유치하며 지역 체육시설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선수 중심의 시설과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앞세워 광주를 전국적인 전지훈련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체육회는 최근 여주씨름장과 국제양궁장에서 국내외 선수단의 전지훈련이 이어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여주씨름장에서는 광주씨름협회 주관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2026 하계 씨름 합동훈련’이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김해양궁고, 수원농성고, 체육공업고, 남산중 등 타 지역 4개 학교와 용봉중, 화정남초, 서산초 등 광주지역 학교, 제주·영암 스포츠클럽 등 총 9개 팀 85명(선수 76명·지도자 9명)이 참가했다. 참가 선수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체력훈련과 기술훈련, 실전 스파링을 소화하며 실전 감각과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국제양궁장도 해외 선수단의 발길이 이

어지고 있다. 베트남 양궁 국가대표팀 8명(선수 6명·지도자 2명)은 지난 7월 29일부터 시작해 오는 8일까지 훈련을 진행하고, 미국 선수 2명도 오는 18일까지 순차적으로 훈련에 합류한다.

광주국제양궁장은 지난해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며 국제 수준의 경기 운영 능력과 시설을 인정받은 데 이어, 해외 선수단의 전지훈련 장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월드컵시설팀은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여주씨름장에는 경기장과 샤워실, 라커룸 등 부대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양궁장에서는 해외 선수단과 지역 선수단 간 훈련 사

대를 사전에 조율하고 폭염을 고려한 휴게공간 제공과 훈련시간 탄력 운영 등 선수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전국 씨름 유망주부터 해외 양궁 국가대표 선수단까지 찾는 전지훈련 명소가 자리 잡으며 광주 체육 인프라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과 지원을 강화하고,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마케팅 효과를 높여 광주가 대한민국 대표 전지훈련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4월 총사업비 5억7000만원을 투입해 여주체육공원 내 여주씨름장을 조성했다. 전용 훈련장과 샤워실, 탈의실, 휴게공간 등 선수 중심의 시설을 갖춰 훈련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공정성 강화 종합대책 시행

클럽 관련 수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존중

선발 절차 표준화·기록관리 강화 등 신뢰 회복

프로축구 광주FC가 유소년 선수 클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유소년 운영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광주FC는 최근 유소년 선수 클럽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관계자들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2일 밝혔다.

구단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자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해 왔다.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의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광주FC는 형사적 판단과 별개로 이번 일을 계기로 유소년 선수 선발과 우선지명권 운영 과정 전반을 재점검했다. 운영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광주FC 유소년 운영 선진화 및 공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에는 공정한 선수 선발체계 확립을 비롯해 선수 선발 및 우선지명권 운

영 절차 표준화, 상담 및 의사결정 기록관리 강화, 선수·학부모와의 소통 확대, 청렴·윤리교육 및 재발방지 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선수 선발과 진로 상담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선수와 학부모, 시민과 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유소년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구단은 한국프로축구연맹과도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연맹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FC 관계자는 “이번 일로 팬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운영상 미흡했던 부분은 겸허히 개선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유소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손흥민, MLS 4경기 연속골…밴쿠버와 1-1 무승부

전반 37분 선제골 폭발

손흥민(LAFC)이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2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의 BC 플레이스에서 열린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2026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19라운드 원정에서 전반 37분 기막힌 오른발 터닝 슈팅으로 LAFC의 선제골을 뽑아냈다.

이날 득점으로 손흥민은 MLS 4호 골과

더불어 4경기 연속 득점의 기쁨을 맛봤다.

2월 MLS 개막 이후 정규리그에서 골 침묵을 지키던 손흥민은 2026 북중미 월드컵 휴식기 이후 처음 치른 지난달 18일 LA 갤럭시와의 경기에서 1호 골을 기록한 뒤 23일 메일 솔트레이크전과 26일 캔자스시티전에 이어 이날 밴쿠버전까지 4경기 연속 득점을 몰아쳤다.

하지만 LAFC는 손흥민의 선제골을 지켜내지 못하고 후반 31분 밴쿠버의 베테랑 골키퍼 토마스 뮐러에게 페널티킥 동점 골을 허용해 1-1로 비겼다. 연합뉴스